

2025. 11. 14.(금) 석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5년 11월 14일 오전 10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 부서: 주택실 주거정비과

사진없음 ■ 사진있음 □ 쪽수 : 2쪽

주거정비과장

김동구

02-2133-7190

통합심의팀장

박성운

02-2133-7204

2025년 제11차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개최결과

□ 금일 처리 안건 : 총 2건

○ 조건부 의결 : 2건

※ 자문, 보류, 보고 안건은 보도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.

※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심의결과 1부.

제11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개최결과

【 2025. 11. 13. (목) 14:00】

■ 총 2건 (조건부 의결 2)

순번	안건명	안건개요	심의결과	비고
1	<심의-신규>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사업	○ 위치 : 영등포구 여의도동 50 일대(109,307.30㎡) ○ 지역지구 : 제3종일반주거지역, 준주거지역 ○ 내용 : 건축+경관+교통+교육+환경+공원+재해+소방	조건부 의결	<공동주택과> 재건축계획팀 팀장 : 임동수 담당 : 김희완 (2133-7141)
2	<심의-신규> 북가좌6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	○ 위치 : 서대문구 북가좌동 372-1일대(104,656.00㎡) ○ 지역지구 : 제2종일반주거지역 ○ 내용 : 건축+경관+교통+교육+환경+공원+재해	조건부 의결	<재정비촉진과> 재정비계획팀 팀장 : 강희일 담당 : 이영선 (2133-7213)

2025. 11. 14.(금) 석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5년 11월 14일 오전 10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주택정책실 공동주택과

공동주택과장	이정식	02-2133-7130
재건축계획팀장	임동수	02-2133-7140

사진없음 ☐ 사진있음 ☒ 쪽수 : 4쪽

서울시,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 2,493세대 본격화...한강 품은 열린 단지 조성

- 제11차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‘조건부의결’
- 십자형 공공보행통로, 입체보행교로 한강 접근성 강화 다양한 공공기여
- 문화공원·데이케어센터 등 시민개방시설 대폭 확충 지역사회 편의 증진

☐ 여의도 시범아파트가 2,493세대 규모의 대형 재건축이 확정되며, 한강과 여의도공원에 접한 입지를 살려 개방적이고 시민 친화적인 주거 단지로 조성된다.

☐ 서울시는 11월 13일 제11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(영등포구 여의도동 50번지 일대)에 대한 심의가 통과됐다고 밝혔다.

<십자형 보행통로+입체보행교, 한강 접근 체계 전면 개편>

☐ 이번 계획은 한강변 입지 특성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됐다. 사업지 북측의 한강과 여의도공원을 고려해 개방감과 통경축을 확보하고, 남동측 63스퀘어와 어우러지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한다.

- 단지 내부에는 십자형(+)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 한강변과 주변 단지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보행 네트워크를 구축한다. 누구나 자유롭게 단지를 통과하며 한강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공공의 접근성을 대폭 높였다.
- 여기에 한강으로 직접 연결되는 입체보행교를 설치해 공공보행통로와 더불어 열린 한강 접근 체계를 완성한다. 폐쇄적 단지 구조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한강을 쉽게 오갈 수 있는 개방형 구조로 전환한다.
- 한강(여의동로) 변에는 문화공원과 문화시설을 조성해 시민들이 한강 조망을 즐기고 휴식하며 다양한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꾸민다. 단순 주거단지가 아니라 지역 문화 거점으로 기능하도록 공공이 직접 지원하는 것이다.
- 고령화 사회에 대응해 노인복지시설인 데이케어센터도 설치한다. 입주민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도 함께 이용하며 지역사회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.
- 단지 내부에는 공공보행통로와 연계해 경로당, 어린이집, 다함께돌봄센터 등 커뮤니티시설을 배치한다. 입주민은 물론 지역 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열린 생활공간으로 조성한다.
- 이번 결과로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이 한층 탄력을 받으며 신속한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거쳐 2029년 착공 예정이다.
- 금번 통합심의에서는 지하 공사 시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하 구조체 라인 단순화 등을 주문하였다.

□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“여의도 대표적인 대단지인 시범아파트가 한강과 어우러진 새로운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.”며 “신속한 재건축 사업 추진으로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, 시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열린 주거환경을 지속 확대하겠다.”고 말했다.

<붙임1>

여의도 시범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

□ 사업개요

- 위 치 :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50번지 일대(면적 :109,308.80㎡)
- 건축규모

구분	건 폐 율	용 적 률	연 면 적	높 이
공동주택	31.99%	399.97%	619,118.87㎡	199.90m

- 배치도 등 (※ 통합심의 조치계획 수립 및 인허가 과정 등에서 조정될 수 있음)

배치도	
투시도	

2025. 11. 14.(금) 석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5년 11월 14일 오전 10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 부서: 주택실 건축기획관 재정비촉진과

재정비촉진과장

김상우

02-2133-7210

재정비계획팀장

강희일

02-2133-7221

사진 없음 ☐ 사진 있음 ☒ 쪽수: 3쪽

북가좌6 재건축, 불광천변 1,953세대 주택공급 본격화

- 제11차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북가좌6구역 ‘조건부의결’
- 16개동 34층 1,953세대 규모,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한 조화로운 도시경관 형성
- 지역과 연계한 공공보행통로·중앙광장 등 개방시설 확보로 지역친화 단지 조성

□ 북가좌6구역이 10여년 만에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며, 불광천변에 1,953세대 공동주택 공급이 본격화된다.

□ 서울시는 11월 13일 제11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열어 서대문구 북가좌동 372-1번지 일대 ‘북가좌6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’에 대한 건축·경관·교통·교육·공원·환경·재해 7개 분야를 한번에 통합 심의하여 ‘조건부 의결’했다고 밝혔다.

○ 대상지는 6호선, 경의중앙선, 공항철도 등 3개의 노선이 지나가는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인근 불광천변에 위치하고 교통이 양호한 지역으로, 2014년 정비구역이 지정된 이후 2024년 6월 변경 결정된 정비계획을 토대로 사업시행을 위한 통합심의(안)을 수립했다.

- 이번 사업은 16개동, 지상 34층 규모로 총 1,953세대(임대주택 243세대 포함) 공동주택을 공급한다. 불광천변에는 지역 주민의 다양한 여가활동과 휴식을 제공할 문화공원을 조성하며, 공원 하부에는 주민과 방문객을 위한 공영주차장을 함께 만든다.
- 주동을 다양한 층수·입면·형태로 디자인해 창의적인 도시경관을 창출하고, 열린 공간과 지역커뮤니티 시설을 계획할 수 있도록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지역과 상생하는 단지로 조성한다.
- 단지 내에는 불광천에서 북가좌 초등학교로 이어지는 통학로, 문화공원에서 응암로까지 연결되는 커뮤니티 가로로 보행환경을 개선하여, 중앙광장과 어린이집, 다함께돌봄센터 등 개방시설을 집중 배치해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이 이뤄질 예정이다.
- 단지 서측 불광천길과 남측 응암로변 도로에는 연도형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해 경계를 허물고 가로 활성화를 유도한다.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- 금번 통합심의에서는 남측 주출입구의 교통체계를 보완하여, 보행자 안전을 확보할 것을 주문하였다.
-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“북가좌6구역 재건축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북가좌동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활성화의 발판이 마련됐다.”며 “주민의 삶의 개선과 지역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.”고 말했다.

<붙임>

북가좌6 주택재건축 정비사업

□ 사업개요

- 위 치 : 서대문구 북가좌동 372-1번지 일원(구역면적 : 104,656.00m²)
- 건축규모

구분	건 폐 율	용 적 른	연 면 적	높 이
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	16.11%	249.87%	385,101.21m ²	104.95m

- 관련자료 (※ 참고자료로서 통합심의 조치계획 수립 및 인허가 과정 등에서 조정될 수 있음)

배치도	
조감도	